

완도군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생산 박차

해조류·머드·황칠·비파·유자 등 지역특산물 활용 36개 제품 개발 내년 개관 해양치유센터서 사용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완도군이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라피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해양치유센터에서 쓰일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테라피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원별 효능 및 활용 방안,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으로 진행한다.

테라피 제품을 살펴보면 우수성이 입증된 완도 머드를 활용한 제품과 피로 회복 및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입욕제, 신진 대사 활성화 및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스크럽 제품, 완도산 해조류와 약리 효능이 입증된 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농축 앰플 등 36개 제품이다.

테라피 제품의 주원료는 해조류다. 완도산 해조류는 전 해역이 정화 작용과 영양 염류를 생성하는

백만석으로 형성돼 있어 해조류의 맛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을 다수 함량하고 있다.

또 완도의 특화 자원인 황칠과 비파, 유자 등 약리 효능이 입증된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 치유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원물의 효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해양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양치유센터 재방문객이 늘어나 해양치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 생산은 2023년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테라피 제품 제조는 '천연식물체 연화 기술'을 활용해 기존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보다 많은 원물을 소비함으로써 과잉 생산·소비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515개 전체 마을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한다

수지 성분 포함 환경오염 초래 식당·전통시장 등에서 재활용

해남군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이스팩 수거를 위해 모든 마을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해남군은 생황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고 있는 아이스팩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515개 마을에 수거함을 설치해 수거, 재활용하기로 했다.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물이나 젤라틴의 고흡수성수지로 만

들어진다.

물을 사용해 만들어진 친환경 아이스팩은 사용 후 물을 비우고 팩 봉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지만, 고흡수성수지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하수구에 버릴 경우 하수구가 막히고, 불에도 잘 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연분해에만 50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사무소에는 아이스팩 분리배출함을 비치해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아이스팩 수거함을 별도로

비치해 모아두면 청소차량이 수거해 가고 있다.

다만 종이 포장된 아이스팩이나 파손 또는 오염된 아이스팩은 수거하지 않는다. 수거함에 모인 것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세척한 뒤 지역내 전통시장, 식당, 식품업체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전달해 재사용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틱이 주성분인 제품이 많아 그냥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재사용을 늘리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민분들께서도 아이스팩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의료기관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추진

신안군이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에 나서 눈길을 끈다.

신안군은 군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지역 내 의원과 함께하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을 추진중이다.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은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중 우울, 불안, 음주,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조기에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 의원에는 정신건강 선별 검사가 비치돼 있으며 고위험군은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정신건강 상담과 전문기관 치료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올해 지도신안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현재 동네의원 12곳이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동네의원은 군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기간 함께해온 의료기관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061-240-5480)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기존업소 40곳·신규 18곳 무안군 모범음식점 47곳 지정

무안군이 모범음식점 47곳을 지정했다.

무안군은 기존업소 40곳과 신규 신청업소 18곳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해 음식문화 개선 이행 여부, 영업소 위생 및 환경상태, 서비스 제공, 정부 정책참여 기여도, 좋은식단 이행여부 등을 토대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 결과 85점 이상,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질적으로 위생수준이 높은 47곳이 최종 선별됐다.

선정된 모범음식점은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전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 용자(1%), 쓰레기종량제봉투(60 l) 월 3매 지원, 군 홈페이지와 전국 시군구에 모범음식점 홍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무안군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발굴, 무안군의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외식업소 위생 수준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무안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용산리 폐정미소 정비 52억 확보

무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 사업비 52억원을 확보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공모사업에 일로읍 용산리 폐정미소 부지가 선정돼 사업비 52억 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을 대상으로 축사, 공장, 빈집, 장기방치건물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유해시설을 철거 또는 이전에 주거환경과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농촌공간의 재 구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등의 이용률이 높아진 백련건강생활도로와 연계해 폐정미소 공장 과 창고를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지구인 일로읍 용산리 일원은 장기간 방치된 폐정미소 공장 과 창고 등 유해시설들이 마을 내에 밀집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역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유해시설을 제거하고 귀농귀촌과 무안에서 살아보기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한편 무안군의 특산물인 황토와 양파, 고구마를 정비부지와 연계해 귀농귀촌 실습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 농요 '전라 우수영 들소리' 한국민속예술제 대통령상 쾌거

전라우수영문화예술진흥회 전남 대표로 참가해 수상

해남 '전라 우수영 들소리'가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은 (사)전라우수영문화예술진흥회가 한국민속예술제에 전남 대표로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전라우수영 들소리'는 논과 밭에서 들일을 할 때 부르는 소리로, 남자들이 불렀던 농요이다. 모뜨는 소리, 모심는 소리, 보리타작소리, 논매는 소리, 장원질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으로만 전해지던 중 우연히 1968년도 녹음본이 발견되면서 지난 2013년 우수영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라우수영 들소리 보존회를 구성,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서남해안에서 전승되는 남자 들소리로서 판

소리 어법을 들소리에 적용해서 선율이 화려하고 꺾는 음을 중심으로 시김새(장식음)를 다양하게 활용해 음악적 짜임새가 두드러진다. 당대 유행하던 사당패 소리를 지역화해 부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제44회 전남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면서 강강술래의 고장, 우수영을 대표하는 또 다른 민속문화자원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수상을 차지한 (사)전라우수영문화예술진흥회는 들소리 35여명과 농악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담소 대표 이병재 선생의 지도로 지금까지 보존전송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수영 주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복원된 들소리가 전국적인 보존가치를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농부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속이 짝찬 가을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을 김장 책임집니다"…해남배추 수확 시작

쇼핑몰 '해남미소' 절임배추 예약

김장철을 앞두고 땅끝 해남의 가을배추 수확이 시작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김장배추는 정식 태풍의 여파로 배추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식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가을철 가뭄으로 피해가 우려됐으나 현재까지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올해 해남 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3071ha, 겨울배추 1711ha로 지난해에 비해 가을배추 재배는 늘고, 겨울배추는 줄어들었다.

현재 수확되고 있는 배추는 대부분 절임배추로 가공되고 있으며, 김장용 배추 수확은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작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배추속이 짝 차고,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영양가가 풍부

하다.

김치를 담그면 쉽게 물러지지 않고, 단맛이 나는 아삭한 식감으로 명품 배추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생배추 외에도 절임배추 가공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생산량의 10%가량이 절임배추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일교차가 커지면서 배추 특유의 단맛이 강해지고, 속이 단단해 지는 만큼 일반 가정의 경우 11월 중순 이후 김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www.hnmiso.com)에서는 김장용 절임배추 사전예약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예약을 통해 질 좋은 절임배추를 원하는 날자에 배송받을 수 있다.

또 3일부터는 '해남미소'를 통해 김장재료 일부 품목에 대해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용해지구에 문을 연 문화복합공간 목포어울림도서관 내부. <목포시 제공>

목포 용해지구에 복합문화공간 어울림도서관

장서 2만2천권·장난감 1300점

목포시 용해지구에 문화복합공간 목포어울림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목포시는 지난달 31일 박홍률 목포시장과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정대성 목포교육장, 도서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어울림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시는 용해지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문화시설 확충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2017년 용해동 인근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목포어울림도서관을 조성했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은 총 129억원이 투입돼 부지 2000㎡에 연면적 4424㎡,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건립된 가운데 현재 아동자료 9855권, 일반자료 1만 2331권 등 총 2만2186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1층은 북카페·문화교실·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드 게임을 비치하고, 그림책 원화전시도 상시로 진행해 어린이와 보호자의 놀이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2층은 어린이자료실·장난감도서관·동아리실·시청각실 등이 운영된다. 특히 장난감도서관은 1300여점의 장난감을 구비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층은 일반자료실·멀티미디어실 등이 각각 마련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청소년참여위원회 바다정화활동. 신안군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들은 최근 압해읍 신장선착장에서 바다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정화활동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제안해 실천하고 있는 활동으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무분별한 해양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했다. <신안군 제공>

목포시, 이태원 희생자 2명 장례비 등 지원

목포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지원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서 목포시에 주소를 둔 희생자는 2일 현재 20대 여성 2명이다.

시는 간부공무원 등이 희생자가 안치된 광주와 부산 소재 장례식장에 각각 방문해 조화를 전달하

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시는 공무원 2명을 각각 배치해 지원하는 한편 장례비와 생활안정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목포 소재 장례식장에 안치된 타지역 주소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2명도 배치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